

박지원 “어디 서 있을지 몰라”... 김한길 탈당 결심 굳힌 듯

새정치 광주 휩쓴 탈당 바람 전남·수도권 확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연이은 탈당으로 분당이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9월22일 박주선 의원의 탈당으로 부터 시작된 새정치연합 탈당 행렬은 지난 13일 안철수 의원 탈당 이후 연쇄 탈당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탈당 행렬이 호남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 이대로라면 제1 야당의 분열이 견잡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 탈당 후 지금까지 이뤄진 후속 탈당은 모두 5명이다. 지난 17일 문병호·유성엽·황주홍 의원에 이어 20일 김동철 의원이, 23일에는 임내현 의원이 잇따라 탈당대열에 합류했다.

현재까지 이뤄진 연쇄탈당의 특징은 텃밭인 광주에서 폭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문재인 대표에 대한 광주 주민심이 약화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광주지역 현역 의원 8명 중 총정배 의원은 4·29 재보선 직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됐고 지금까지 박주선·김동철·임내현 의원 등 3명이 탈당했다. 잔류해 있는 나머지 의원 4명 중 3명도 탈당 결심을 거의 굳힌 채 시가만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권은희 의원은 주말에 탈당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장병완 의원은 지지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며 박해자 의원도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는 의정보고회에서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론 청취는 탈당 명분쌍기용이란 분석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김기정 의원만 새정치연합에 남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반문(반문재인) 정서가 강한 전남에서도 광주만큼은 아니지만 원심력이 커지고 있다. 우선 박지원·주승용·김영록 의원의 탈당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 “민심이 원하고 있다면 제가 어디 서 있을지 예측불허”라며 “저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하지 않는다면 탈당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정치연합 입장에서 심각한 것은 탈당도미노가 수도권으로 북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시작은 비주류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 전 대표는 지난

권은희 주말 탈당 할 듯

장병완·박해자 이달중 선언

주승용·김영록 ‘저울질’

김한길계 의원들 행보 촉각

20일 문 대표에게 살신성인 결단을 촉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낸 데 이어 문 대표가 사퇴를 포함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탈당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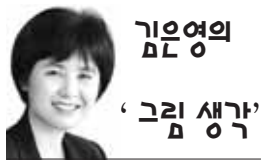
김 전 대표의 탈당은 ‘김한길계’ 의원들의 동반 탈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내에서는 이종걸 원내대표와 주승용·노용래·정성호·최재천·최원식 의원 등이 김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로 분류된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때문에 새정치연합 중진들이 이날 김 전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 조기선대위 체제를 중재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한편, 민선 2~3기 서울 관악구청장과 18대 관악을 국회의원을 지낸 김희철 전 의원이 권리당원 2000여 명과 함께 조만간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연탄배달하는 안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국민연금 동보노원지사 관계자 등과 함께 연탄배달 봉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로가 죽어가면서도 보고 싶어했던 그림



김은영의 '그림 생각'

(139) 플란더즈의 개

미션 스쿨인 여고에 다니면서 어느 해 성탄절을 앞두고 친한 친구 전도로 교회에 갔던 기억이 난다. 그 친구는 성가대 지휘를 하는 교회 오빠를 좋아했다. 당시 여학생들에게 ‘교회 오빠’는 로망이었다.

성탄절 즈음의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사라지고 또 마음에 들 ‘교회 오빠’가 없어서였을까. 나의 신앙은 더 이상 자라지 못했고,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를 묻거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반갑아 되면서 품만 잡다 여고시절을 보냈다.

성탄절 무렵이면 이런 추억들과 함께 루벤스 같은 화가가 되고 싶은 아이가 주인공인 동화 ‘플란더즈의 개’도 함께

생각난다. 루벤스의 그림이 걸린 동네 성당에 둔이 없어 들어갈 수 없었던 네로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그림 앞에서 굶주린 채 얼어 죽으면서도 행복해한다.

네로가 간절히 보고 싶어 한 그림이 바로 피터 파울 루벤스(1577~1640)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림’(1611~14년 작)이다. 벨기에 안트베르펜의 대성당 제단 위를 장식한 이 그림은 중앙 패널에 위치한다. 십자가에서 천천히 내려지는 예수의 육신을 둘러싸고 대각선으로 인물들이 배치되어 있는 이 그림은 빛이 예수의 몸과 그 아래 새하얀 수의에 집중되어 있다. 예수의 거룩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비극적이지만 고요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당시 신자들의 신앙을 확고히 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한다.

‘화가들의 화가’로 불리는 루벤스는 위대한 예술가인 동시에 외교관이자 뛰어난 사업가이기도 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림 주문이 쇄도했지만 큰 조직력을 지닌 루벤스가 제작, 조



루벤스 작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수들과 함께 공동작업을 한 것도 유명하다. 루벤스의 구상에 따라 조수들이 밑그림을 그리고 채색을 마친 후 루벤스가 본격적으로 붓을 들고 얼굴이나 비단 옷에 손질을 더하여 조화롭게 완성해나갔다. 루벤스는 자신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당장 생기를 띠게 된다고 확신했고 실제로 그랬기에 네로의 영웅이 되었을 것이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文대표 사퇴 시점 못 박아 탈당 사태 막아야”

새정치 광주 유일한 주류 의원 강기정 인터뷰

“현역의원 책임감 있다면

탈당 아닌 정계은퇴 해야”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지역 의원 중 유일하게 주류 측으로 분류되는 강기정 의원은 23일 “문재인 대표가 자신의 사퇴 시점, 통합 전당대회 등 이달 중 향후 구체적인 정치 일정을 밝혀야만 탈당 사태를 막을 수 있고, 호남 민심도 되돌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표가 ‘친노’(친 노무현) 세력을 공천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공천권을 내려놓고 혁신 선대위 및 공심위, 선거기획단 구성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그동안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 총선은 문 대표 얼굴로도, 안철수 의원 얼굴로도 치를 수 없다”며 “신당 추진 세력을 포함한 통합전당대회를 내년 설 이전에 성사시켜 여당과 일대일 구도로 치러야 승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광주 의원들의 연쇄 탈당 음



“현역 의원으로서 책임이 있다면 탈당이 아니라 정계 은퇴를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최근 탈당을 고민중인 지역 현역 의원들

직임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유권자들의 요구는 당의 리더십을 보완하라는 것이지만, 분당해서 분열을 꾀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탈당하라는 민심이 아니라 당을 보완하고 바로 잡으라는 것이 민심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이 문제가 있다면, 구성원들 모두 책임을 느껴야하고 특히 현역 국회의원들의 책임은 더욱 무거운 것”이라며 “탈당하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의원 활동을 하면서 성과는 잘한 대로, 과오는 못한 대로 평가를 받아야지 탈당해서 유권자들의 평가를 업그레이드 하려거나 또 다른 평가의 기회를 얻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면서

을 만나 실득작업도 벌였다. 강 의원은 “장병완·박해자 의원을 만나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했다”면서 “두 의원은 탈당이 목적이 아니라 당의 리더십을 세우는데 답답하니 이런 방법이라도 써서 리더십을 보완하고 수정하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강 의원은 “충심은 이해되지만, 당인으로서, 현역의원으로서 다이라는 수단이라도 써서 당의 리더십을 보완하고 수정하고 싶다고분들의 다광주 정가 안팎에서는 지역 의원 8명 가운데 결국에는 강 의원만 새정치민주연합에 남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ICL(안내렌즈삽입술)

ICL이란?

ICL(Implantable Contact Lens-안내삽입콘택트렌즈)수술이란 고도근시 및 원시의 시력교정을 위해 개발된 시력교정수술로 각막은 그대로 보전된 채 특수 고안된 렌즈를 수정체 앞에 삽입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각막두께가 얇거나 심한 안구건조증 또는 각막질환으로 인해 라식, 라섹이 어려운 경우 ICL수술로 시력을 교정 할 수 있습니다.

● 렌즈삽입술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최신 설비를 갖춘 전문 병원에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진 의사에게 시술을 받아야 안전 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스미일/라식/라섹/ICL/백내장/녹내장/망막/눈성형/노안



백운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증-68156호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